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발명은 취미삼아 하라

발명만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은 대단히 적다.

힐튼은 예술가이면서 증기선을 만들었다.

농축 오렌지주스를 고안한 사람은 마이아미대학의 스탈교수였다.

전신기의 모르스부호를 고안한 모르스는 초상화가였다.

호이트니는 교사였는데 면방직기를 발명했다.

철계의 안전하고 튼튼한 찬장을 생각한 사람은 오하이오주의 복사디크였다.

접게 만든 절첩식 톱은 어떤 사무원이 부도에서 스텝을 때 가지고 있던 톱으로 남을 다친 것이 원인으로 고안한 것이다.

지우개 붙인 연필을 화가인 하이만의 고안이었다.

술잎비누는 만담가인 벌리판의 발명이다.

이처럼 전문가가 아니면서도 세상이 인정하는 발명을 한 사람이 많다.

발명만이라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어릴 때 부터 발명을 「생각하는 취미」삼아 하는 편이 좋다. 「머리를 쓰는 공부」가 된다. 그 이상의 것을 하면 실쾌하고 만다.

발명을 하나의 「특기나 취미」로 한다면 손해를 보거나 낙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심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한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어릴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공작·음악·실과·기술은 모두 하나의 학문이다.

공작을 잘 하니까 장차 목수가 될다거나, 노래가 좋으니까 가수가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날처럼 복잡한 세상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는 옛날처럼 읽기·쓰기·셈하기만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는 없다. 여러 가지의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 공부해두던 장래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이다.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은 세상 전체의 행복이 되는 것이다.

발명은 이제부터 더욱 더 늘어난다.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에 홀려서 「발명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발명에 대한 지식을 쌓고 몸에 배게 익혀야 한다.

발명은 우선 근본이 되는 지식을

익힐 것, 결코 과학만 좋다고 해서 는 안된다. 수학도 해야하고 외국인의 연구를 알려면 외국어도 해야 한다. 또 날마다 보는 것을 잘 관찰하는 습관을 붙이는 것도 발명에 대단히 중요하다.

한 우물을 깊게 파라

“돈벌이의 지름길은 한 우물을 깊게 파는 일이다.”라고 한다. 다방·음식점·회사·은행등에서 성냥을 받는다. 그 대부분은 점명 및 사명만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런 성냥에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대단한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 한다.

결국 「성냥의 조그만 발명」인데, 성냥이라면 필수품으로 누구나 손에 가지는 것인만큼 조그만 연구로 가게의 선전도 되고, 상품 및 회사의 인상을 심어 주기도 한다. 거기에 눈을 떠서 성냥이지만 「변형성냥」만으로 해마다 무려 1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동경의 한 빌딩의 수위로 있는 봉급장이 S씨이다.

자신은 ‘취미 도락입니다.’라고 간단히 말하나 천만에 지금은 「성냥박사」의 별명이 붙어 있다.

어려서부터 그리기와 만들기가 좋아서 이런 대회에서는 언제나 상을 탔으며, 연구하고 만들기가 즐거웠



강 신 묵
〈새생각회 회장〉

다. 중학시절엔 어떤 상품의 특허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무엇을「생각하고 만드는 습관」이 운동선수의 일정한 연습처럼 계속됐다. 이런 까닭에 완구의 기업시대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살려서 상품을 만들거나, 수출도 손뚱으나 불행히도산, 무일푼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취미 도락이 마음에 큰 기둥이 되어 비관대신에 항상, “조금만 더 참기로 하자. 곧 배가 울테니!” 하고 밝은 마음의 나날이었다고 한다.



성냥박사의 제1호는 동경올림픽의 해에 시작하여 가끔 신문의 한 귀퉁이에,

“올림픽경기로 선전용 성냥의 평판이 높다.”는 것을 안 S씨. 그 정보를 암시로, 우선 음식점 관계의 성냥을 이리저리 생각해 갔다. 작은 아파트에서 생각한 성냥의 제1호는 맥주병을 본딴 성냥이었다. 운이 맞아 그 해에 어느 맥주회사가 신제품을 내게

되자 이것을 선전용으로 채용해 주었다. 무일푼에서 일변하여 광명을 되찾은 S씨는 그 뒤로 성냥에 주목하여 각양각색의 「원형성냥」을 고안했다. 성냥이라던 보통 「장방형」의 것과 은행에서 보는 「삼각형」의 것 두 종류뿐인데, S씨가 고안한 것은 성냥만 무려 50종류가 넘는다. 그 속에는 간막이식 성냥, 구두 주걱달린 성냥등 여러 가지로 바로 「성냥박사」로 불릴만 하다. 그러나 이 창의연구의 나날은 종교 즐거운 반면에 성냥박사답게 그만한 노력이 뒤따른다. 근무처의 주 사출의 근무외에 정보수집자 신문을 오투내고 백화점을 돌아 다니고 독서 등으로 보내고 있다.

하나만은 제1인자가 되라

60년 전 가난으로 국민학교를 중퇴하여 점원이 된 A소년은 평소에 궁리하기를 즐겼다.

“단면이 동그란 레일보다 4모가 더 좋겠다.”

“철의 레일보다 낫쇠가 더 아름답고 질기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28세가 되자 주인의 철물점과 경쟁하는 것이 싫어서, 제조업을 골라서 평소에 생각했던 레일의 신제품 개발에 열중했다.

차츰 건물이 양품화되자 창은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붙이는 일이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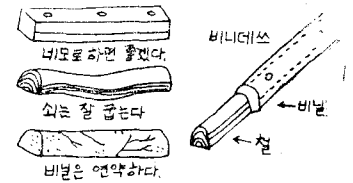
그러자 철의 덧문은 타는듯하게 열이 나서 팽창하기 때문에, 자연히 굽어서 덧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서 곤란했다. 드르릉거리는 소리가 시끄럽고, 비를 자주 맞아서 녹이 슬어서 여러모로 결점이 많았다.

그래서 A씨. 곧 비닐만으로 레일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드럽

리워서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음에는 녹슬지 않게 도료를 발라더니 이것도 바퀴가 지나기 때문에 날이 가면 벗겨진다. 그래서 3번만에 생각한 것이 철의 레일에 두꺼운 비닐판을 끼우는 것이었다. 접착제를 쓰면 칼씩 들어붙어 하나가 된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효과가 났다.

1. 비닐판이 두꺼워서 드르릉거리는 덧문의 시끄러운 소리가 안난다.

2. 녹슬지 않는다.



3. 비닐판에 햇볕이 직접 철에 닿지 않으니까 늘어나서 굽는 일이 없어졌다.

특허를 잘 아는 그는 곧 이것을 실용신안에 출원했다. 그리고 이것에 「비니데스 레일」이라는 이름을 붙여 상표에도 출원했다. 참으로 치밀한 솜씨다. 「특히로 굳혀서 상표로 지킨다」는 말처럼 「성공기업의 정석」을 착실하게 실행했다.

이것은 처음에는 한 달에 3만 개밖에 안팔렸으나, 지금은 한 달에 2백만 개나 팔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억 개나 팔렸다.

덧문의 레일로는 그가 단연 일본 제1이다.

발명의 비결은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재료를 찾아 「만들어 보는 일」이다. 생각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만든다는 것은 그 속에 백명, 또는 천 명에 한 두 사람으로 줄어 든다.

소리는 귀로 듣고, 발은 입으로 하듯이 「발명은 손으로 하는 것」이다. (계속)